유통업계, 추석 선물세트 본격 판매

백화점·마트 등 전국 매장서 본판매 나서
한우·건강세트 늘려…1인가구 위한 상품도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에 나서면서 한우와 건강선물세트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쇼핑은 오는 7일 롯데닷컴, 12일 롯데슈퍼, 13일 롯데마트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본 판매에 들어갔다.

롯데닷컴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가 가장 큰 인기를 끌어서 올해도 건강선물세트와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단독 상품을 강화했다.

롯데닷컴에서만 구매 가능한 대표적인 단독 상품은 '고려은단 비타민C, 알티지 오메가 각 60정', '정관장 홍삼 진비고 선물세트(100g*2병, 2세트)', '롯데 로스팜 복합 2호' 등이다.

롯데슈퍼는 12일부터 25일까지, 롯데마트는 13일부터 26일까지 각각 2주 동안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둔 건강선물세트와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10만원 미만 신선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올해 기상 이변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일 선물세트의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점포에서 '2018년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본판매 기간에 전국 15개 점포별로 150~200평 규모의 특설매장을 열고 한우·굴비·청과 등 신선식품과 건강식품·가공식품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본판매 기간 명절 대표상품으로 꼽히는 한우 선물세트의 품목 수를 지난해보다 30% 늘리고, 물량도 50%가량 확대했다.

현대백화점은 "1인 가구 및 소가구가 증가하고 편리한 식사를 선호하는 고객이 늘어나 '프리미엄 간편식 상품' 물량을 지난해보다 50% 늘렸다"며 "포장을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거나 간단한 조리만 거쳐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도 7일부터 모든 점포에 추석 특설매장을 열고 추석 선물 본판매에 나선다.

신세계는 지난해 추석보다 선물세트를 3만 세트 늘려 총 30만 세트 준비했으며 특히 10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확대했다.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품목은 작년 추석대비 52개(10%), 물량 역시 총 10만 세트로 지난해 대비 42.8% 각각 늘렸다.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추석 예약판매에서는 작년 추석대비 판매가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정육(한우)이 2.4%, 수산 3.5%, 농산 2.0%, 건강·차 17.7%, 주류가 11.6% 각각 늘었다.

신세계는 본판매 기간 선물을 구매하는 고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사전 배송 접수 데스크를 운영한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겨울 인기 아이템 무스탕 선봬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4층 파슨스매장에서는 가을의류 상품 및 올 겨울 유행할 인기 아이템 인조 무스탕을 선보이고 있다. 인조 무스탕은 트렌디한 느낌은 물론 뛰어난 보온성으로 가볍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올 겨울 완벽한 겨울룩으로 여성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 두 종류이며, 롱은 3십6만9천원, 숏은 2십9만9천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전남도,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15일부터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 대상 판촉행사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주 등 대도시에서 '2018 추석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전남산 우수 농수산물 판촉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4일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장터에서는 전남 21개 시군, 38개 생산자단체(농가)에서 생산한 364개 품목을 판촉한다. 서울장터는 전국 160개 시군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장터다.

이번 직거래행사에서는 여수 돌산갓김치, 나주 배, 곡성 곶감, 영광 굴비, 완도 다시마 등 전남을 대표하는 품목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외에도 광주시 2개소, 서울시 2개소, 세종시 1개소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며,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남도장터와 전남우정청, G마켓 등과 연계한 오픈마켓 판매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청산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도에서 엄선한 농수특산물을 준비한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거래장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화재·리콜 여파' BMW 520d 판매 급감

80% 감소…전체 등록대수는 벤츠 이어 2위 지켜

리콜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BMW 간판 모델 520d의 판매량이 한 달 새 무려 80% 가까이 줄어 베스트셀링(최다판매) 모델 상위권에서 빠졌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8월 BMW 520d의 신규 등록대수는 107대로 7월(523대)보다 79.5%나 감소했다.

520d는 화재 관련 차량 결함이 불거지기 전인 5월과 6월만 해도 각각 1천239대, 963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링 모델 1위, 2위를 달렸다.

그러나 7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반 토막(45.7%)이 나 5위로 내려앉은 데 이어 8월에는 100대를 겨우 넘기면서 아예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520d가 베스트셀링 모델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며 "잇단 화재와 리콜 사태의 여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8월 BMW의 전체 모델 신규 등록대수는 2천383대로 1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3천19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BMW의 8월 전체 판매량은 전월보다 39.8%,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9% 감소했다.

벤츠 역시 전월 대비 36.0%, 작년 동기 대비 42.7% 줄었는데 이는 8월에 브랜드별로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수입차협회는 설명했다.

물량 부족 여파로 8월 전체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전월보다 6.4% 감소한 1만9천206대로 집계됐다.

8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아우디 A6 35 TDI(1천14대)가 차지했으며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937대), 아우디 A3 40 TFSI(701대)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23만2천원"

aT "대형마트는 32만9천원"…지난해보다 7% 올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3만2천 원, 대형유통업체 기준 32만9천 원으로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aT가 전국 19개 지역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전통시장 기준으로는 6.9%, 대형유통업체 기준으로는 4.9% 상승한 수치다.

aT는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국지적 호우로 인해 채소·과일 일부 품목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차례상 차림 비용이 오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쌀이 전통시장 기준 32.6% 오른 것을 비롯해 배추·무·시금치도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

사과와 배는 상품과(上品果) 비중이 줄었고, 밤·대추는 낙과 피해에 따라 가격이 다소 올랐다.

반면 계란은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13.8% 싸졌고, 북어와 조기는 재고량이 넉넉해 가격이 낮아졌다.

aT 관계자는 "추석 전 가계의 알뜰 소비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 더 추석 성수품 구입 비용과 선물세트 가격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에 대한 상세 정보는 aT의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터 정보는 싱싱장터 홈페이지(www.esinsing.com)에서 찾을 수 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227-0000

전남농협, 정예 산지유통조직 육성 현장컨설팅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최근 담양 봉산농협 회의실에서 산지유통 현장컨설팅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컨설팅 전문위원, 지역농협 담당자, 담양 관내 딸기 공선출하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지유통 현장컨설팅은 농협경제지주가 2017년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시군 연합사업조직의 당면현황과 과제를 8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컨설팅 지원단와 함께 해결해 정예화된 산지유통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농협은 지난해 3개소에 이어 올해에도 3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박태선 본부장 "현장컨설팅을 통해 관내 17개 연합사업조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dj2891@